우리말 어휘의 시간을 읽다

몽실몽실하다

오늘의 뜻에서 옛 문헌까지



오늘의 뜻

통통하게 살이 쪄서 매우 보드랍고 야들야들한 느낌이 있다.

문헌의 첫 기록
19세기

수록 용례
5개

수록 내용
뜻 · 표기 · 문헌

사전의 뜻풀이, 옛 표기와 문헌 용례를 함께 읽는 자료입니다.
모든 뜻과 세기의 기록을 수록했습니다.
문헌 속 한자 3자의 뜻·음과 숫자 획순을 부록에 담았습니다.

우리가 알고있는 '몽실몽실하다'의 뜻

국어사전 뜻풀이

사전에 수록된 오늘날의 뜻입니다.

> 통통하게 살이 쪄서 매우 보드랍고 야들야들한 느낌이 있다.

몽실몽실하다의 표기 연대표

표기의 변화와 공존

몽실몽실하다의 표기를 세기별로 모았습니다. 같은 세기에 여러 표기가 함께 쓰이기도 했습니다. 연대표는 모든 문헌 뜻의 기록을 모으며, 연결된 용례는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을 기준으로 읽습니다.

표기 · 근거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몽실몽실ᄒᆞ다 사전 표기 요약	—	—	—	—	●→	●→
몽실몽실하다 사전 표기 요약	—	—	—	—	—	●→
몽실몽실ᄒᆞ- 문헌 수록 표기	—	—	—	—	●→	●→
몽실몽실하- 문헌 수록 표기	—	—	—	—	—	●→

연대표의 근거와 읽는 법

- **사전 표기 요약**: 사전의 표기 변화 요약입니다.
- **문헌 수록 표기**: 세기별 문헌에 함께 실린 표기를 더한 것입니다.
- 점이 없는 시기에도 이 말이 쓰였을 수 있습니다. 표시된 세기는 자료에 기록이 남은 시기로, 낱말이 생기거나 사라진 때와는 구분됩니다.
- 점은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의 해당 세기 용례로 연결됩니다.

시대별 주요 표기 모아보기 2종

사전의 표기 요약과 문헌 수록 표기를 모았습니다. '현재'는 오늘의 표제어이며 역사 세기와 구분합니다.

- 몽실몽실ᄒᆞ다
  19세기20세기
- 몽실몽실하다

20세기현재

원자료의 전체 표기 목록 2종
몽실몽실ᄒᆞ-, 몽실몽실하-

몽실몽실하다의 어원과 변화

이 말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사전의 어원·변화 설명
소제목은 읽기를 위한 편집 안내

옛 표기와 등장 시기

‘몽실몽실하다’의 옛말인 ‘몽실몽실ᄒᆞ다’는 19세기부터 나타난다.

말의 구성과 어원

‘몽실몽실ᄒᆞ-’는 부사 ‘몽실몽실’에 현대어 ‘-하-’로 이어지는 ‘-ᄒᆞ-’가 결합한 것이다.

소리와 발음의 특징

18세기 이후 제1음절의 ‘ㆍ’가 ‘ㅏ’로 변화하게 되면서 20세기 이후 ‘ᄒᆞ’를 ‘하’로 표기하게 됨에 따라 ‘몽실몽실하-’로 나타나 현재까지 이어진다.

문헌 속의 몽실몽실하다

전체 용례 5개

모든 뜻과 세기의 문헌 용례입니다. 원문, 현대어 풀이와 출처를 함께 확인하세요.

19세기 몽실몽실ᄒᆞ- 용례 2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몽실몽실ᄒᆞ-

출처 1880 한불자전 246

용례 01

문헌 용례

몽실몽실ᄒᆞ다.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897 한영자전 PART Ⅰ :336

용례 02

문헌 용례

몽실몽실ᄒᆞ다.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20세기 몽실몽실ᄒᆞ-, 몽실몽실하- 용례 3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몽실몽실ᄒᆞ-, 몽실몽실하-

출처 1911 치악산 하:101

용례 03

문헌 용례

너도 오ᄂᆞᆯ부터 몽실몽실ᄒᆞᆫ 즁ᄃᆡ강이를 길너 샹토를 싸고 ᄭᅩ불ᄭᅩ불 쓴 신학문 칙은 불에 ᄐᆡ와 바리고 쥬로 도로 나려가 쌍이나 파셔 먹ᄌᆞ.

현대어 풀이

너도 오늘부터 몽실몽실한 중대가리를 길러 상투를 짜고 꼬불꼬불 쓴 신학문 책은 불에 태워 버리고 주로 도로 내려가 땅이나 파서 먹자.

출처 1921 조선일보 4월 17일 3면

용례 04

문헌 용례

그 미인은 옥 갓흔 가삼을 폴어헤치고 몽실몽실한 팔을 늘이여.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957 조선일보 6월 2일 4면

용례 05

문헌 용례

가슴에 부딪치는 여인의 몽실몽실한 촉감이.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세기 분류·표기·문헌명·현대어 풀이는 사전 자료 그대로 수록했습니다.
- 문헌의 연대와 세기 분류가 다른 경우에도 사전에 수록된 구분을 따릅니다.
- 용례 수는 이 사전에 수록된 예문의 수입니다.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와 구분해 읽어 주세요.

몽실몽실하다의 보충 설명

≪조선어사전≫(문세영, 1938)에는 '몽실몽실하다'가 실려 있는데, 그 뜻을 물건이 말랑말랑하고 매끄러워서 붓잡기가 어렵다를 뜻하는 '몽글몽글하다'와 같다고 하였다. ≪큰사전≫(1957)의 '몽실몽실'은 기름지게 살져서 보드라운 육체(肉體)의 느낌을 주는 꼴이라고 뜻풀이가 되어 있다. 한편 철업는 어린 자식은 방 한 구퉁이에서 자막대기를 가지고 몽실몽글한 두 다리를 쪽 벗고서에서는 '몽실몽실하다'와 같은 의미를 지닌 '몽실몽글하다'가 보인다.

몽실몽실하다의 참고문헌

사전 편찬 참고자료

별도의 참고문헌 목록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료 출처

이 자료는 '단어의 역사'의 낱말 페이지에 수록된 사전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했습니다. 원문과 현대어 풀이, 주석과 문헌명은 원자료의 표기를 따릅니다.

용례의 수는 이 자료에 수록된 예문의 수이며,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를 뜻하지 않습니다.

history.wordrow.kr · 몽실몽실하다의 뜻과 역사

한자 한눈에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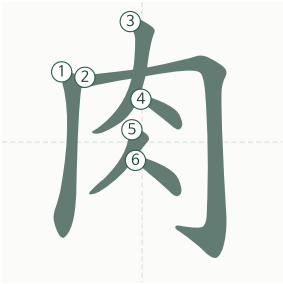
뜻·설명·문헌·함께 읽을거리에 나온 한자를 중복 없이 모았습니다. 획순은 한 글자의 숫자로만 표시합니다.

肉

뜻·음 고기 육

총 6획 · 부수 肉





hanja.wordrow.kr/한자/肉/

體

뜻·음 몸 체

총 23획 · 부수 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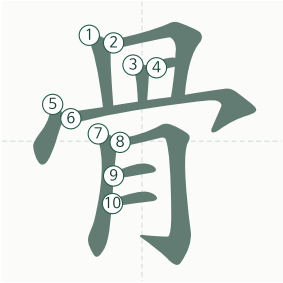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體/

骨

뜻·음 뼈 골

총 10획 · 부수 骨





hanja.wordrow.kr/한자/骨/

그림·뜻·음·획수: WORDROW 한자 학습 사전 · 각 카드의 주소에서 조회
획순: AnimCJK / Make Me a Hanzi · Arphic Public License · 숫자 배치 편집: 단어의 역사
사전 획수와 다르면 함께 표기했습니다.